

사회

갤럭시S2 배터리 '펑'... 중학생 화상

광주 교실 수업중... 본체와 분리된 채 호주머니 보관 단독 폭발

광주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폭발해 중학생이 화상을 입었다.

휴대전화에 장착된 배터리 폭발 사고는 그동안 수차례 발생했지만, 휴대전화와 분리된 호주머니에 넣어둔 배터리가 폭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서구모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10분께 이 학교 박모(15·3년)군이 호주머니에 보관중이던 갤럭시S2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 박군이 엉덩

이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박군은 사고 직후 보건실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부모와 동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군은 당시 교실에서 5교시 수업을 준비중이었으며, 학교측이 휴대전화를 수거한 상태에서 여분의 배터리를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한 배터리는 가로 4.5cm·세로 5.9cm·두께 0.4cm)는 무게 2.5g 정도로 폭발여파로 외부 덮개와 내용물이 분리된 상태였다.

이 학교 정모 교장은 "박군이 바지

에 넣어둔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면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교실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며 "박군과 함께 있던 같은 반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막 시작하려던 양모(45) 교사도 배터리 폭발 순간을 함께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군이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서 폭발한 배터리를 꺼내려다가 엉덩이에 이어 손가락에도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폭발한 배터리는 박군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광주 모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부속품이다.

삼성전자 광주서비스센터측은 박군의 부모로부터 폭발한 배터리를 건네받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터리 납품업체와 사고원인을 공동 분석하고 있다"며 "광주서비스센터 측에서 피해 학생에게 보상조치를 취할 예정이냐"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광주에서 발

미세 이물질 접촉 스파크 가능성 추정

배터리만 폭발 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의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측은 폭발이 휴대전화 본체가 아닌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에 장착돼 있는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에서 고열이 발생하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니켈 성분이 함유된 배터리의 정전기와 맞닿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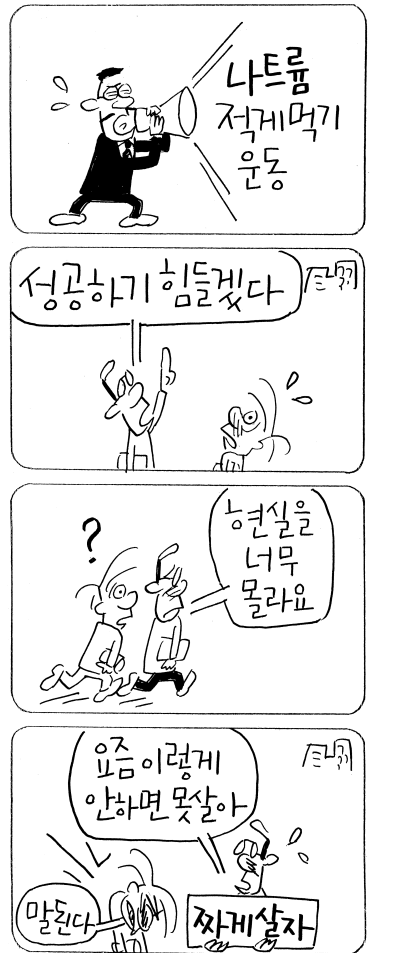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21일 광주에서 발

생한 폭발 사고는 배터리가 단독으로 폭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스마트폰과 별도로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배터리만 넣어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발사고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줄만한 요소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작업자의 피복 등에 묻은 미세한 이물질이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면 스파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분리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529) 김중두



인건비 골짜기 현장소장 구속

여수해경은 22일 어민과 유협업소 종업원 등 7명의 근로내용을 조작해 인건비 등 1억6000만원의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여수산업단지내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지모(46)씨를 구속했다.

지씨는 지역 어민과 유협업소 종업원 등에게 고용보원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인건비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 김창희기자 chkim@

보조금 편취 어촌계장·공무원 해외여행

업체대표 등 29명 적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대 정부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시공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어촌계장 등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2일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D업체 대표 L씨(48)와 진도지역 어촌계장 23명, 진도군청 공무원 K씨(56) 등 모두 29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편취한 보조금이 4000만원이 넘는 어촌계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편비 보조금 지급에 적극 가담한 진도군청 소속 K씨 등 5명

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8억여원이 투입된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4억4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재 설치 때 어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50%)을 시공업체, 공무원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선지급된 것처럼 금융계좌를 조작했다.

더욱이 정부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어촌계장 등과 함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보조금 편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물, 사랑하고 아끼자” 22일 영산강 송촌보 구하도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물의날’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들이 물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중생이 훈계 여교사 뺨 수차례 때려

대구서... 학교측 “전학계획”

수업시간에 정숙할 것을 요구하며 훈계하는 여교사에게 여중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은 지난 21일 모 중학교 교사 임모(여·30)씨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혐의(상해)로 학생 김모(15)양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철관 지우개로 머리를 두 차례 맞자 양 손바닥으로 교사 임씨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수업 종료시각 5분을 앞두고 임 교사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김양이 욕설을 퍼부은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알려졌다. 교실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반반씩 섞여 있었지만 김양을 따르는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한 관계자는 “김양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듯 하다”면서 “3월 1일자로 새로 온 임선생은 학생들에게 열정이 컸다”고 덧붙였다. 담임교사 김씨는 22일 오전 대구 서부교육청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양에게 7일간 출석정지를 할 계획이며 환경전환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인비리’ 수사 지역업체로 확대

광주지검, 컨소시엄 참가 1곳 금전거래 조사

광주지검 총인저감시설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들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탄기(설계·시공 일괄 발주) 입찰의 경우 대기업과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업체들이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비리 연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대립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1곳을 대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했다. 검찰은 이 업체에 대해 올해 초 입수한 수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수한 금전 거래와 관련된 문건과 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 의혹이 있는 금전 거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기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심사위원과 예비심사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번 비리 사건으로 20여 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금품들)받은 쪽이 더 있으며, 관련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인저감시설 입찰에 참여한 업체(괄호 안은 지분율)들은 대립컨소시엄의 경우 대립(40%)·중흥(17.5%)·남해(17.5%)·태영(15.0%)·해성(10%), 금호컨소시엄은 금호(48.0%)·한양(22.0%)·우미(20.0%)·서령(10.0%), 현대컨소시엄은 현대(55.0%)·남광건설(30.0%)·한라산업(15.0%), 코오롱컨소시엄은 코오롱(50.0%)·포스코(20.0%)·상명(20.0%)·테크(10.0%) 등으로 구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모교서 휴대전화 훔친 철없는 10대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철없는 10대들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오모(16)군 등 고교생 3명은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책상 서랍에 보관중이던 학생의 휴대전화기 1대를 훔쳐 친구에게 팔았다는 것.

○경찰은 “동중의 전과가 있는 이들이 범행대상을 몰색하다 내부 구조를 잘 아는 학교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며 “달랑 휴대전화기 한 개만 훔쳤다고 하지만 수법이 나 의도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재채기나 콧물이 줄줄 흐르며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에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 090204-중-4738호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